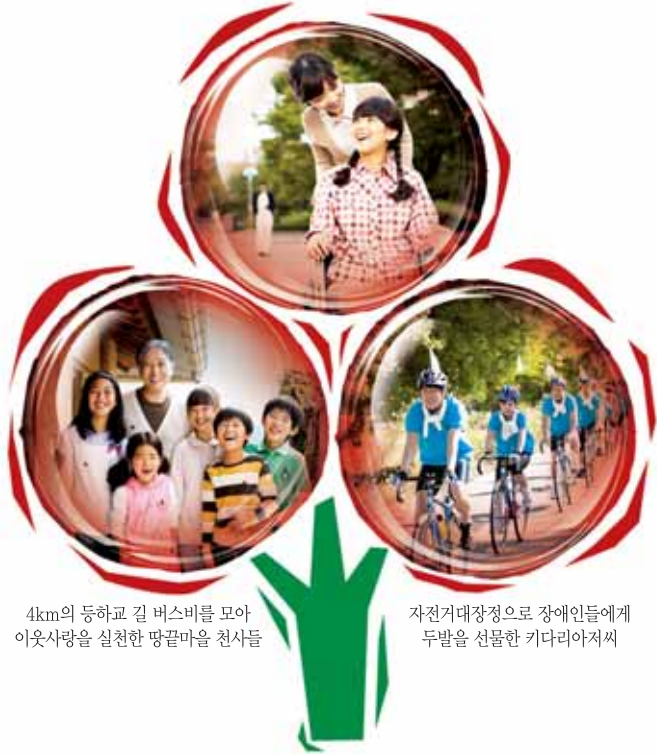




“나의 1% 나눔, 우리의 100% 행복”
희망2011나눔캠페인



4km의 등하교 길 버스를 모아
이웃사랑을 실천한 땅끝마을 천사들

자전거대장정으로 장애인들에게
두발을 선물한 키다리아저씨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이어 주세요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 소중히 전하겠습니다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을 나누는 계좌 | 농협 731-01-002268 | 대구은행 021-05-780444-001 | 예금주 : 경북공동모금회(전계좌 수수료면제)

ARS기부 060·700·0060 기부상담 053·980·7890 gb.chest.or.kr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아동·청소년·노인 여성·가족·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의 마음을 전해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모금 및 배분전문기관입니다.

겨울
[통권 384호]
2010 WINTER

새벽을 여는 경북 · 일지리가 있는 경북

Oride
Gyeongbuk

프라이드 경북



2011 Culture Calendar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 | | | 1 경안 일월산 해맞이 축제 상주 해맞이 및 국민안락가원제 희망! 2011 영덕해맞이축제 (2010. 12. 31 ~ 2011. 1. 1) 포항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2010. 12. 31 ~ 2011. 1. 1) |
| 2 | 3 | 4 | 5 | 6 | 7 상송 2011세계민속등반대회 (1. 7 ~ 1. 9) | 8 구미문화예술회관 어려서부터 무지개 '고파터지 상행례' (1. 8 ~ 1. 9) |
| 9 | 10 | 11 | 12 | 13 | 14 | 15 구미문화예술회관 애니메이션단 제8회 정기연주회 |
| 16 울릉도눈꽃축제 (1. 16 ~ 2. 2) | 17 | 18 | 19 | 20 구미문화예술회관 도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31 | | | | | |

* 안동 일산일물축제 (매년 1월 중순경)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영천시민회관 도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 10 | 11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도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 12 |
| 13 | 14 | 15 | 16 | 17 청도 정월대보름축제 영주 순흥초교창놀이 예천 대보름민속놀이 울릉 달맞이축제 경주 정월대보름행사 김천 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 | 18 | 19 구미문화예술회관 발매의 함께하는 현대지 가족뮤지컬 '인아공주' (2. 19 ~ 2. 20) |
| 20 | 21 | 22 | 23 구미문화예술회관 도립교향악단 창립 및 입성식등 (2. 23 ~ 3. 1) | 24 | 25 | 26 |
| 27 | 28 | | | | | |

* 예천 국민민속놀이(매년 2월 중)

* 의성 전국민속놀이 및 민속놀이 콘서트 (매년 2월 중)

CONTENTS

2010. 12



스페셜 이슈

04 구제역, 조기에 진화하겠습니다!

알찬살림 부자경북

08 2010 월드그린에너지포럼, 명품 축제로 거듭나다!
10 경상북도 'DAILY 사과', 고급 수출사과로 꾸준한 인기!

웃음가득 행복경북

12 500년 종가문화, 솟을대문을 열다!
14 '아이누리 구미 장난감 도서관' 개원

밝은미래 희망경북

16 태권도 유적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18 경북 막걸리의 끝없는 진화!

도민사랑 일류경북

20 2010 하반기 새마을운동 보급 위한 외국인지도자 초청연수 개최
21 2010 희망나눔 경북 쌀사랑 캠페인

나드리, 이리 오이소~

22 경상북도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 - 맛있는 경북여행 / 사진이 있는 풍경여행
26 경상북도 '부지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한식세계화에 도전한다!

프라이드 News+

28 만화로 보는 햇살론
30 찰칵! 경북의 오늘
36 도정단신
41 도의회 소식
53 경북 알람이
55 2011 세계빙벽등반대회

[통권 384호] 표지 이야기

겨울, 마당 깊은 상주 웅기골
장독들이 나란히 흰 눈을 이고 있다.

2007 제 1회 상주사랑전국사진공모전
[인상] 김미환 作 '웅기골 설' 사진제공 - 상주시청



2010 WINTER

·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김관용 · 편집인 | 김창곤 · 발행일 | 2010년 12월 23일
· 문의처 |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1445-3) TEL. 053)950-3058 FAX. 053)956-4926
도정 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의 구독을 원하시거나 주소가 바뀌신 분은 경북도청 공보관실(053.950.30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조기에 진화하겠습니다! ◎

구제역, 물샐 틈 없는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겠습니다!
300만 도민들과 함께
경상북도 공직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철저한 농장 소독과 농장출입 통제 당부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안동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경북지방경찰청, 육군 제50보병사단, 양돈·한우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소독 및 예찰활동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 도청을 총괄지원반, 인력지원반, 장비지원반, 확인점검반, 홍보반 등 총 5개반으로 편성,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24시간 방역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시·군의 인력으로는 방역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매일 도청직원 300명을 교대로 방역초소 현장에 투입하고, 구제역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구제역 피해축 매몰작업의 가속화와 추가발병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역 광역기동대' 120명, 도청 공무원 330명, 소방공무원 100명, 안동 소재 국가기관 150명 등 총 800명을 안동 살처분 현장에 긴급 투입하는 등 7,000여명의 공무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방역초소 현장에는 추가로 지원받은 경찰 900여명과

군 병력 700여명을 배치하였으며, 군은 초소근무 외에도 대전과 영천 공병대에서 지원받은 장비로 매몰지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게 된다.

경상북도는 양축농가, 가축위생시험소 및 각 시·군 방역기관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여 줄 것 과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의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지속적이고 철저한 예찰활동 및 발생지역의 철저한 방역 및 살처분 이행을 조기에 구제역이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구제역 발생은 도내 5만 축산농가의 생업과 직결되고 그 파급효과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도민, 축산 관련 단체, 공무원 등이 합심하여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수차례 강조하고, "구제역 긴급방역차단을 위해 예비비 19억원, 특별교부세 55억원을 긴급지원하여 통제초소 및 방역약품 구입 등에 사용"토록 조치하였다.



◎ 겨울철 소독 안전수칙 ◎

1. 출입차량 소독요령(안전사고 예방조치)

- 이동통제초소 50~100m 앞에 서행표지판(야광)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도로폭을 축소하여 서행 유도
- 일반 차량은 차량 바퀴 및 외부를 소독하고 축산 관련 차량은 차량 안과 밖 전체 소독
 - 축산 관련 차량은 길가에 정차공간을 확보하여 정차시킨 후 휴대용·이동식 분무기로 운전석 발판 및 운전자 신발 등 소독 실시
 - ※ 기온이 섭씨 0℃ 이하일 경우 차 유리에는 소독 금지
- 바닥에는 부직포를 충분한 길이로 깔고 소독 후 반드시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결빙 방지
 - ※ 도로결빙 방지를 위해 필요시 터널식 보온장치 및 온풍기 등 설치

2. 소독약품 사용시 주의사항

- 생석회(과립형)을 사용할 때는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눈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비비지 말고 즉시 흐르는 수돗물이나 식염수로 눈을 씻은 후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며, 보관시 수분과 접촉을 할 경우 200℃ 이상의 발열이 일어나 화재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분과의 접촉을 피할 것
- 염기제제는 부식성이 강하므로 차바퀴 외 차체 등에 사용시 페인트가 벗겨질 우려가 있으며, 알루미늄 계통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눈·피부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포르말린액은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수질오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할 것
- 산성제제와 염기제제를 같이 사용할 경우 중화되어 소독효과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같이 사용하지 말 것





구제역 방역을 위한 겨울철 소독요령

Q1.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 소독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A] 겨울철에는 병원체의 야외 생존성이 길어지므로 더욱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추워 분사된 소독수가 얼어 소독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녹을 때 소독효과가 나타나므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기구 및 소독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축사 입구에 반드시 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미지근하게 데워서 사용하고, 축사통로는 주기적으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겨울철에는 아주 엄격한 출입통제와 더욱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Q2. 겨울철 소독기구 및 소독수(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독기구는 동파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 후 남아 있는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호스, 파이프, 노즐 부위의 소독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온 덮개를 하거나 창고 등 실내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정문 소독조는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시설적 보완이 가능한 곳에서는 열선 등 보완장치를 하여 소독조가 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열선 등 보완장치

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정문 소독조가 얼었을 경우에는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하고 실내 보관된 소독약 및 소독용 분무기를 이용하여 차량바퀴 등 외부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축사입구 소독조는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실내에 옮겨 사용하되 미지근하게 물을 데워서 소독약을 희석하여 사용하고, 소독조의 소독수는 유효농도 유지를 위해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보고 수시 교체하며 일단 희석한 소독약은 남기지 말고 전부 사용하여야 합니다.

Q3.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하는지?

[A] 일반적으로 추운 겨울철의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제의 효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이동식 소형 소독기는 실내에 보관하면서 필요시 사용하도록 하고, 정문 소독조 등은 열선 등 보완장치를 하여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Q4. 겨울철 소독수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결 방지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소독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체독성이나

환경독성이 없는 동결방지제는 국내외적으로 개발된 것이 없으므로, 소독제의 동결방지는 열선 등의 보온장치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Q5. 구제역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의 적정한 희석배율은?

[A] 소독은 분변, 오물 등을 물로 깨끗이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유기물이 없는 청결한 환경에서 소독제를 적용하는 것이 소독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소독제 희석배율은 제품의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유기물 및 오물이 많은 도로변, 소독조, 축사내부 등에서 사용시에는 소독제의 농도를 제품 사용설명서의 희석배수 범위 내에서 고농도(낮은 희석배수)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6. 방역통제 초소에 사용하는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은 인체에 유해한지?

[A] 방역통제 초소에 사용하는 긴급방역용 소독약품은 인체에 해가 적고 차량에 손상이 없는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소독작업자가 소독제에 장시간 또는 과다노출시 피부, 점막 등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소독제 안전사용수칙(보호장구 착용, 통행차량의 창문을 닫은 후 소독, 부주의로 인한 과다 노출시 물로 충분히 씻어냄 등)을 준수하고, 제품 권장 희석배율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행차량 등에 대한 소독작업과정에서 만일 소독제가 사람의 피부에 묻었을 경우 가능한 빨리 물이나 비눗물로 충분히 씻어 주어야 합니다.



경상북도, 대한민국 그린에너지산업 중.심.지 재확인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협력모델 구축

경상북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라는 세계적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미래 에너지산업의 세계 중심'을 목표로 2008년 처음으로 개최한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이 2010년 그 두 번째 행사를 맞아 한층 높아진 위상을 증명했다.

2010 월드그린에너지포럼(World Green Energy Forum 2010)은 '지구의 미래, 그린에너지, 그린혁명'을 주제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주시 일원에서 30개국, 3천여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미래 에너지 연구분야 세계적 권위자는 물론 각국의 에너지 정책전문가와 이들을 취재하기 위한 세계의 언론이 집중하는 등 지구촌의 관심을 경주로 이끌었다.

이번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이 가지는 의미는 국내 인사뿐만 아니라 핀란드 경제부 장관, IAEA 이사 및 주한 EU 대사, 러시아 에너지 정책전문가, 15개

국 주한대사들의 참석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기술과 관련한 전 세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슈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포럼 기조연사로 참가한 마우리 페카리넨 핀란드 경제부 장관은 "세계에너지기구(IEA) 27개 회원국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핀란드"라며 "한-EU FTA 체결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한국과 핀란드 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렉산더 스킨로프 러시아 ESI 부원장은 "러시아 에너지시장은 주로 수력과 화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용률을 현재 0.5%에서 4.5%까지 늘리기 위해 해상 풍력과 태양광 분야 투자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조연사들은 각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소개



를 통해 기존 화석연료에너지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5개 신·재생에너지 분야 세션에서는 11월 17일에서 18일에 걸쳐 3개 그린에너지원별 주제발표와 토론 시간이 펼쳐졌는데 특히, 스마트그리드 분야 세션에서는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성장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기도 했다.

태양광 분야 세션에서는 태양광 시장이 미래 최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제시됐다. 태양광 발전의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3~5년 이내에 달성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15개국 주한대사를 조찬모임에 초대하여 다음 포럼에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포럼 이튿날과 마지막 날에 시행된 나이트투어와 산업시찰에도 23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김관용 도지사는 "포럼이 진행된 경주는 앞서 FAO아태총회, G20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된 곳으로 본 포럼을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경상북도가 식량, 경제,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제시하는 국제사회의 중심지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세계의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을 벤치마킹하고 경북 에너지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한 본 포럼을 통해 국내·외 에너지 관련 기술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표명하고, "과학, 기술, 지식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경북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원자력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만 타이페이에서 사과수출 촉진 및 홍보활동 펼쳐

경상북도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만에서 경상북도 수출사과 'DAILY' 수출 촉진을 위한 시장개척활동을 펼쳐 현지인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데일리(DAILY) 사과' 수출전문단지 조성,
국제 상표등록도 확대

이번 시장개척 활동에서는 경북도와 도내 사과주산지 시·군, 대구경북농업농협, 경북통상, 농산물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대만에서 사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일리(DAILY) 사과' 수입 바이어를 초청, '경북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타이페이 청과물도매시장 내에 'DAILY 사과' 집단 판매상가를 조성하는 등 대만 소비자들에게 'DAILY 사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였다.

그동안 한국사과의 수출을 주도해 온 경북사과는 지난 2007년 대만에 첫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자체 브랜드인 'DAILY'를 개발하여 2008년 대만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함으로써 고급 수출사과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DAILY 사과' 수출량도 2007년 108톤, 25만 6천불에서 2009년 1,654톤, 3,804천불로 6배 이상 늘어나는 등 대만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DAILY 사과'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영주시, 안동시, 봉화군 등 도내 사과주산지 6개 시·군의 데일리스과 수출전문단지 10개소 670ha에 봉지 씌우기, 친환경 기자재 등 1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당도가 높고, 색도가 좋은 고급 품질의 사과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신규 시장개척을 위해 지난해에는 미국,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도 'DAILY 사과'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개국에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에는 출원 중에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 수출사과 'DAILY'는 당도도 높고 색깔이 좋아 대만시장에서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사과수입 바이어 초청 등 판로 개척활동을 계기로 대만은 물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사과 수출을 확대, 도내 사과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내시장의 안정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종가문화 세계와 소통하다

2010 종가포럼 개최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의 발전 가능성 모색

경상북도는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 종가문화를 보존하고 우수한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2010 종가포럼을 '종가문화, 세계와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11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여 큰 관심을 모았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종가포럼에서는 한국 주재 각국 대사 및 문화원장, 전국 종손·종부, 유림단체, 다문화가족, 외국 유학생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가문화를 세계적인 문화브랜드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학술행사의 기조강연자로 나선 베르너 샷세 한양대 석좌교수는 정작 한국인들은 잊어 버린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에 주목, 전통문화의 표면 뒤에 숨어있는 가치들을 재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베르너 교수는 "한옥이 지닌 건축적 아름다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한옥이 지닌 '공기의 흐름', '공기 길'을 고려한 건축원리에 대한 새로운 가치인식과 재해석을 통해 폐쇄적인 현대 건축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유교의 오륜(五倫) 또한 위계적 관계가 아닌 상호적 관계였음을 주장했다. 예를 들



어 '자식은 어버이를 섬겨야 한다'는 오륜의 윤리강령도 '자식과 어버이는 서로 친함이 있어야 한다'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조강연과 함께 대표적인 한국학 학자인 마크 피터슨 교수(미국 브리검영대)의 '한국의 종법 및 종가문화', 김광익 교수(서울대)의 '종가문화의 세계화 - 가치, 가능성, 방향'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학술행사 외에도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공연, 조정 권창률 선생의 휘호퍼포먼스 등 다양한 식전공연이 펼쳐졌고, 부대행사로 12개 종가의 내림음식과 서울대학교 디자인연구소에서 현대적으로 개발한 종가 인장, 문장 전시도 이뤄졌다.

종가음식 전시에서는 한글 최고의 요리사로 알려진 '음식디미방'에 꿩고기와 갖가지 나물로 만드는 법이 소개된 석계종택의 '잡채', 표고버섯과 잣을 만든 '석이편'이 선보였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요리사 '수운잡방'에 실린 '삼색어이탕', '육면', '전약', '황탕' 등 고조리서 음식이 원형 그대로 소개되는 등 쉽게 접하기 힘든 다양한 종가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각 종가의 내림음식이 독창적인 맛과 담음새로 참가자들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았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종가는 '집'이라는 단순한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어 유교문화와 선비정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오롯이 녹아 있는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가문화의 메카'로 불리는 경상북도에서는 '종가문화 명품화 프로젝트'를 통해 유서 깊은 종가문화를 보존하고, 우수한 문화적 가치를 알려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세계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장난감 마음껏 빌려 드립니다!



“ 신나게 놀고, 재미있게 배우자! ”

경상북도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용 장난감을 대여하여 자녀양육에 따르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영유아의 놀이활동 촉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 단위 자치단체 최초로 설치한 '아이누리 구미 장난감 도서관'을 11월 17일 개원했다.



이번 장난감 도서관 개원으로 그동안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성장과 정서발달에 큰 도움을 주고, 쉽게 싫증내는 아이들에게 연령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장난감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 가능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시설 위주의 지원에서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또 장난감놀이를 통해 아동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와 웅진씽크빅이 '보육선진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하기로 약속한 전자칠판과 어린이용 교양도서 1만권 등 총 1억 5천만원 상당이 기탁되어 구미 제1호점과, 12월 개원에정인 경주 제2호점에서 비치하여 활용하게 된다.

대여품목으로는 교육용 장난감, 도서, 교육용 시청각자료(CD, DVD) 등을 구비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가구는 무료대여하고, 개인 및 보육시설은 회원제로 운영된다. 대여방법은 일반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저렴한 비용으로 장난감을 10일 이내에서 대여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접하게 되는 만큼 위생에 각별한 신경을 쓰기 위해 도서관 안에 장난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한번 대여한 장난감은 소독 후 대여하여 위생에 완벽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이 지역의 보육 및 교육의 중심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놀이 공간을 마련, 교재 및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부모교육, 장난감 만들기, 영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는 구미에 이어 경주에도 12월 중에 장난감 도서관을 개원할 예정으로, 육아비용 경감,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영유아의 놀이활동 촉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난감 도서관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구 분 | 이용대상 | 연회비 | 대여수량(장난감, 도서) | 대여기간 |
|------------------|--------|---------|---------------|------|
| 가족회원 | 0 ~ 7세 | 20,000원 | 대회 2점(대형 1점) | 10일 |
| 시설회원 | 보육시설 | 50,000원 | 대회 5점(대형 3점) | 10일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0 ~ 7세 | 무료 | 대회 2점(대형 1점) | 10일 |

태권도 유적 관광자원화 사업추진, 50억원 투자

태권도의 원류인 화랑 유적지를 연결한 9개 코스 개발·운영

경상북도는 11월 1일 경주시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조 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도 및 경주시 공무원, 연구용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 2011년 경주세계태권도대회를 앞두고 태권도 정신의 원류를 토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태권도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태권도 유적지 관광자원화 개발구상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50억원을 투자, 태권도 유적과 관련된 총 9개 코스에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탐방로를 정비한 뒤 태권도 관련 관광상품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태권도의 원류인 화랑 유적지를 연결한 9개 코스에 각 코스마다 화랑도가 지켜야 할 행동지침인 세속오계를 중심으로 테마와 시놉시스를 설정·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통일전과 화랑교육원을 태권도 문화원형의 발상지와 전통무술 수련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향후 발전과제로 제시했다.

경북도는 이날 연구용역의 결과로 2011년 150여개 국가에서 약 1만명 정도가 참석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태권도 유적지 관광자원화 선도사업으로 순례코스 1개와 통일전 일부 리모델링 사업비 등 선도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주 남산



석굴암

골굴사



<태권도 유적 탐방코스 조성>

| 코스명 | 세부동선 | 시놉시스 |
|---------------|-----------------|--|
| 기파랑길 | 통일전~골굴사~대왕암 | 한국적 영웅의 모델 기파랑과 그 정신이 꽃 피운 신라문화의 정수를 만끽하며! |
| 호국의 길 | 통일전~석굴암~골굴사 | 만파식적을 둘러싼 신라와 왜의 기나긴 전쟁 이야기를 찾아 가는 길 |
| 화랑의 우정과 수련의 길 | 통일전~단석산~여근곡 |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과 김춘추! 그리고 화랑들의 신뢰와 우정을 따라가는 길 |
| 용화향도 길 | 통일전~삼화령~월정교 | 허무하게 지문 화랑들의 염원, 그 애잔한 현장을 찾아서... |
| 화랑 풍류 길 | 통일전~삼릉계곡~포석정 | 경주 남산 어디까지 가봤니? 남산의 무릉도원 삼릉계곡 끝자락에 자리한 화랑의 풍월도여! |
| 화랑서원 길 | 통일전~황룡사지~삼랑사지 |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와 맹세,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와 맹세를 찾아서! |
| 태권품세 길 | 통일전~분황사~괘릉 | 태권 품세의 근원, 진정한 무도인의 길을 찾아 떠난 이들의 성장스토리 |
| 화랑 국선의 길 | 통일전~태종무열왕릉~금곡사지 | 태권도 원류인 화랑도 유적과 정신을 찾아서 |
| 태권도 원형 탐방길 | 통일전~명활산성~김유신정군묘 | 나는 죽어 신라의 신병(神兵)이 되리라 |



경북 막걸리, 농·특산물을 입고 '명품'으로 거듭나다!

언제부터인가 '막걸리 전성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 막걸리는 단순히 쌀, 밀 등 한 가지 곡물로 빚은 '전통주'라는 절대적 가치로, 맛과 향, 색깔이 거의 동일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치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래서 막걸리 하면 하얀색, 텁텁한 맛, 플라스틱 용기가 소비자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다.

경북 막걸리가 이러한 편견을 과감히 깨고 향토의 대표 농·특산물로 향과 색깔을 입히고, 영양과 맛을 더하며 진화를 거듭, '명품 막걸리'로 등장하여 전국 막걸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청송 사과, 대추, 성주 참외, 의성 흑마늘, 문경 오미자, 포항 우뭇가사리, 상주 곱감, 블루베리 등 경북도내 대표적 농·특산물들을 이용한 막걸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거나 제품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중 문경오미자와 포항 우뭇가사리 막걸리는 지난 9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30차 FAO 아태총회 시 국내·외 인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만큼 인기를 끌었고, 청송의 대추막걸리는 올해 우리 술 품평회에서 막걸리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까지 올려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 11월 18부터 21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한 '2010년 햅쌀막걸리 출시행사'에 상주 은자골 탁배기와 문경 만복생막걸리를 출품, 수도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도 했다.

지역의 농·특산물을 원료로 한 막걸리는 생산자와 소비자, 기업,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우선 정보의 홍수에 빠르게 반응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싱싱한 농·특산물을 재료로 이용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권까지 보장해준다.

또한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할 것이며, 막걸리 업체 또한 지역원료 사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음은 물론 고품질

의 신선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지역 막걸리산업 또한 특성화, 차별화라는 깃발을 달고, 영세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막걸리를 한 번쯤이라도 마셔본 소비자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마시기 위해 흔들면 거품이 흘러넘치는 하얀 플라스틱 용기의 불편함을...

이제는 아니다! '발상의 전환이 소비자를 즐겁게 한다'는 말이 있다. 산에 올라가서 일회용 커피를 마시 듯 미숫가루처럼 물에 풀어먹는 막걸리가 있고, 집에서 부글부글 발효 과정을 지켜보며 직접 만들어 먹는 D.I.Y(Do it yourself) 생막걸리가 도내에서 개발 출시되었다. 깔끔함과 스마트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하여 탄생된 제품이다.

D.I.Y 생막걸리는 경북도가 지난 9월 쌀 소비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쌀 소비촉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한슬기씨의 아이디어이다.

'D.I.Y 막걸리 키트'는 팥화미와, 우리 밀, 누룩, 효모를 포함하는 막걸리 키트로, 유산균이 살아있는 생막걸리를 집에서 만들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아이디어 제품으로, 고두밥 대신 팥화미를 사용함으로써 고두밥을 짓는 번거로움도 없애고, 물만 부어 쉽게 만들 수 있고 물의 양에 따라 술의 도수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유통기간이 길어 그동안 생막걸리가 해외에서 인기가 있으나 수출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산균이 살아있어 건강도 챙기고 가족들과 직접 술을 담아 즐기는 재미도 맛볼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는 막걸리산업의 시장규모가 2012년에 이르면 대망의 '1조원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블루칩 산업임을 강조하며, 수도권 기업에 비해 경쟁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지역 막걸리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 타 지역 제품과 차별화하고 특성화시키기 위해 산·학·연 R&D 지원을 통해 건강·가능성 막걸리 등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함께 품질인증을 위한 시설현대화, 신·중설 지원은 물론 전시·판매행사 등 마케팅 영역까지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막걸리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4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카테일 막걸리, 드라이 막걸리 등
상품 형태도 다양하게



“우리도 한번 짚 실이보세!”

개발도상국 지도자들 새마을운동 배우러 경북도 방문 러시



경상북도는 올해 상반기 아프리카 6개국 지도자 41명에 대한 새마을운동 초청연수에 이어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4개국 20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보급을 위한 외국인지도자 초청연수를 개최, 베트남 4명, 인도네시아 4명, 캄보디아 8명, 라오스 4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캄보디아 반티스레이 시장, 시엠립 부시장, 베트남 농촌발전부장 등 고위관료들이 적극 참여하여 새마을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증하였다.

경운대학교의 경상북도새마을아카데미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 성공사례 연구’와 ‘자국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

개발’ 및 새마을발상지, 포항제철, 하회마을방문 등 한국의 산업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경상북도가 저개발 국가의 빈곤퇴치를 위해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 세계화 보급사업이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상북도가 올해 초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함께 새마을운동 보급 대상국가를 조사한 결과, 아시아 15개국, 아프리카 12개국, 중남미 2개국에서 새마을운동 전수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들 국가에 대해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보급사업은 외국 인도도자 초청연수, 새마을해외봉사단 파견, 외국인 유학생 연수, 대학 생해외봉사단 파견 등이 있다.

경북도에서는 올해 실시한 연수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연수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중남미 국가까지 새마을운동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0 희망나눔 경북 쌀사랑 캠페인

쌀(米)쌀(米)한 겨울, 사랑을 나누어요!

나눔은 '희망문화'입니다!

올 겨울 여러분의 첫 번째 나눔은

'경북 쌀 사랑나눔기'입니다.

건강한 밥상으로 우리의 이웃과 농업인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경북 쌀에 사랑과 희망을 실어주세요!

주최 | 경상북도 주관 | 농업경북지역본부

문의전화

농협경북지역본부 경제총괄팀 053)940-4461 36,000원 / 20kg 1포(2010년산, 배송비 포함)

판매금액

참여계좌

농협 301-0066-9166-61 (예금주: 농업경북지역본부)

‘경북의 맛’이 이야기가 되어 다시 태어나다

달콤한 경북 별미 스토리텔링 - 맛있는 경북여행



경상북도의 전통문화와 음식 등 유·무형의 특별한 콘텐츠를 재미있는 이야기와 결합하여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 국내·외 여행객을 유혹한다.

경상북도는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도내 스토리텔링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경북의 맛’을 주제로 ‘달콤한 경북 별미 스토리텔링 - 맛있는 경북여행’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경상북도의 별미와 전통주 40곳의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을 엮은 ‘맛있는 경북여행’ 가이드북은 관광객들에게 흥미와 즐거움이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자연경관 등 우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리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제2회 경북포토에세이 공모전 15편의 당선작을 책으로 엮은 ‘의성단촌 사람들의 삶의 맛’은 사진과 글이 어우러진 주옥같은 작품들로 구성되어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도 흥미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며, 제1회 경북블로그

대회 공모전 13편의 당선작을 모은 ‘블로그, 경북여행과 통하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블로그를 마케팅 전략과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관광상품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발굴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또 지난해에는 지역별 콘텐츠를 활용한 어린이를 위한 학습만화를 발간하여 인기를 끌기도 했다.

최근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여행에 관한 많은 여행서적이 출판되고 있으며, 진열대 역시 목 좋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행서적 판매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된다.

경상북도는 스토리텔링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의 성과로 출판한 여행 등 책자 5종을 비매품과 판매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었으며, 비매품은 전국 공공도서관과 주요 관공호보행사 등에 배포하였으며, 판매용은 전국 서점에서 판매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상북도의 매력적인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를 몰라 스쳐 지나셨다면 이제부터는 이 한 권의 책을 들고 당당하게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나타내며, 또한 “이 책은 재미와 설렘을 선물할 것이며, 그동안 우리는 너무 풍경에만 사로잡혀 여행을 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다. 오랜 세월을 걸쳐 나이트를 더해오듯이 이야기를 더해온 경상북도의 명소와 명물을, 이제 이 책에 실린 이야기의 눈으로 알아보는 것도 재미난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의 : 관광산업과 053-950-2189〉

경상북도의 별미 40곳 스토리텔링
전통과 어우러진
인동소주 · 교동법주 · 봉화선주 숨겨진 비법 공개

경북테크노파크
GYEONGBUK TECHNOPARK

경상
북도

풍경이 있는 사진이 있는 여행

길에서 만난 역사, 자연 그리고 고향

경상북도 80곳 절경을 한권의 여행책으로 읽다



경상북도

“ 경상북도 사진이 있는 풍경여행 ”

경상북도는 여행작가의 시선으로 경상북도 관광을 리뉴얼한 '경상북도 사진이 있는 풍경여행'을 발간하였다.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출사지를 여행전문가의 꼼꼼한 안내와 프로 사진작가의 여행사진 노하우를 함께 알려준다.

여행전문가와 프로 사진작가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계절별 좋은 사진여행을 할 수 있는 1박 2일 코스 설계와 촬영포인트, 경북의 맛집, 편안한 잠자리 등 여행자의 눈높이에 알맞게 구성했다. 특히, 좋은 사진을 담기 위한 시간대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프로작가의 사진 찍는 노하우까지 사진여행을 위한 지침서로서는 손색이 없다.

사진 한 장은 수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선사한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풍경사진 1장이 어느 날 개인용 PC의 바탕화면이 되기를 기대하며, 경상북도와 프로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 이 책은 경북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새로운 형태의 여행 지침서라고 자부한다.

최근 디지털 시대의 수혜로 카메라의 보급과 사용자가 급속하게 늘어나 휴대폰 카메라에서부터 DSLR 카메라까지 하나쯤은 소유하고 있다. 여행을 떠날 때 도시락보다 카메라를 더 챙긴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이와 같은 트렌드(Trend)에 맞추어 경북만의 특별하고 새로운 여행상품으로 구석구석 보물 같은 여행지를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경상북도 사진이 있는 풍경여행' 책자를 발간·판매한다.

또한 현재 수도권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전담여행사에서 1박 2일 출사여행 상품이 판매 중이며 고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서적들은 대부분 비매품으로 제작되어 홍보용으로 무상 배포가 되었으나, '경상북도 사진이 있는 풍경여행'은 일반서점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소장하고 싶은 가치있는 책으로 만들었다.

이에 '경상북도 사진이 있는 풍경여행'은 비매품과 판매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었으며, 비매품은 전국 공공도서관 607곳과 중요 관광홍보행사 등에 배포하였고, 판매용은 전국 서점에서 13,000원에 판매된다.



2010년 10월 18일 초판 1쇄 출간
- 신국판(175*225) / 224쪽
(문의: 관광마케팅사업단 053-950-2197)

길 에 서 만 난 풍 경 이 그 러 을 때
이 책 을 따 라 경 북 에 오 세 요



마늘전문 음식점, '마늘이야기' 탄생!

다양한 마늘요리 체험, 식단의 엑스트라 마늘이 주인공으로...



한 '마늘이야기'는 마늘을 이용한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즐길 수 있음은 물론, 의성마늘 재배모습을 담은 전시 공간, 즉석에서 의성마늘 구입도 가능한 그야말로 '의성마늘 관광 1번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마늘이야기'에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음식 메뉴는 의성마늘냉면, 의성마늘곰탕, 마늘술술정식, 마늘불고기, 마늘떡갈비, 마늘쌀눈죽, 마늘오향장육, 마늘초코릿, 튀김마늘과 꿀벌떡, 마늘통구이, 마늘 돼지보쌈, 마늘과 송이들깨탕 등 계절과 식재료에 따라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앞으로 계절별로 보다 다양한 마늘 음식을 내놓을 예정이다.

'마늘이야기',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전래동화 제목이 떠오른다. 하지만 '마늘의 고장'에 생긴 실제 음식점의 이름이란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 '마늘의 고장', 의성지역에 새로운 명물로 등장한 '마늘이야기'는 지역특산물인 마늘의 부가가치 증대와 의성마늘의 소비확대를 위해 지역의 마늘 재배농가들이 힘을 합쳐 농업인조직을 결성, 이 농업인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마늘 전문음식점'이다.

'마늘이야기'는 마늘재배농가들이 단순한 마늘생산과 판매를 넘어서 외식산업으로 진출해 보겠다는 당찬 각오로 출발한 것으로 농업이라는 1차 산업에서 탈피,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 2, 3차로 융·복합 산업화하려는 시도라하겠다.

'우리영농의성마늘작목반'으로 출발한 '마늘이야기 영농조합법인'은 의성지역 마늘재배농가 30호로 구성되었으며, 경상북도가 농어촌 공동소득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아 '마늘이야기'를 탄생시킨 것이다.

'마늘이야기'는 내국인만을 위한 음식점이 아닌 최근에는 일본관광객 유치에도 나서는 등 한식세계화의 선두주자로 성장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마늘은 한국 사람에게 그 존재가치가 더욱더 크다 하겠다. 특히 의성지역 마늘은 '의성 = 마늘'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그 명성이 높다. 이러한 마늘의 고장 의성에 자리

경북도는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이자 의성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농산물인 마늘을 이용한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농업소득뿐만 아니라 농외소득 확대를 늘리기 위해 앞으로도 공동소득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해야하는 저신용, 저소득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야.

아하~

대출자격

신용6~10등급 또는 등급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및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대출금리

| | |
|-------------------------------------|-----------------------------|
| 상호금융회사 (농협, 수협, 신협, 신협조합, 새마을금고) | 저축은행 |
| 10.6%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결정 | 13.1%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결정 |

금리 상한은 조달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변동에 따라 변동가능.

대출절차

| | | |
|--------|-------------------------------|-----------------------------|
| 대출 신청자 | 농협, 수협, 신협, 신협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 지역신용 보증재단 |
| 근로자 | 대출심사 및 보증심사 | 지역합자, 동원어업인 7월이내 보증심사후 결과통보 |
| 자영업자 | 농협 어업인 | 근로자 1~2달내 대출 |

단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및 연체중인 경우는 대출이 제한 된다더군.

와~정말 우리같은 서민에게 정말 말그대로 따뜻한 햇살론이네.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양국 정상 보증 경북도, 이르쿠츠크주와 상호 우호 협력 서명 체결



경상북도는 지난 9월말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드미트리 메데베데프의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추어 11월 10일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 러시아 대표단, 우리 정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메젠체프 주지사와 양 도-주간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의회'에 서명했다.

경상북도와 이르쿠츠크주는 지난 1996년 9월 10일 이르쿠츠크 주지사의 위임을 받은 주의회의장과 경상북도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공동 발전을 위해 교류관계를 돈독히 해왔다.

그러나, 2004년 개정된 러시아연방국가사법·행정예 관한 연방 법률에 따르면 양 자치단체장이 아닌 자가 자매결연을 체결했을 경우 재 체결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번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경북도, 세계적 기업 美 MMP 등과 5자간 MOU 체결 화장품산업 글로벌 R&D 거점화 및 단지 조성사업 공동추진

경상북도는 바이오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 특성을 살려 화장품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삼걸 행정부지사, 최병국 경산시장, 이준구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미셸 멀시어(Michel Mercier) MMP대표이사, 김천식 (주)솔브리지텍 대표이사, 대구한의대학교 이창언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MMP(미국), (주)솔브리지텍, 대구한의대학교, 경산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로 글로벌 R&D 거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산·학·연·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생물한방산업의 구조고도화, 브랜드화, 글로벌화에 큰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익준비금을 외투(FDI)로 인정받아 채투자한 첫 사례 경북도·구미시, (주)델코와 2공장 증설 투자양해각서 체결

경상북도는 10월 20일 구미시청에서 김관용 도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권혁수 (주)델코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및 산업용 배터리 생산업체인 (주)델코와 588억원 규모의 제2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주)델코 2공장은 구미 부품소재전용단지 내 43,000㎡에 588억원을 투자,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용 배터리를 비롯하여 산업용·농기계용·통신용 등 모든 분야

의 축전지를 생산할 계획이며, 공장이 완공되면 185명의 추가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특히 (주)델코가 그동안 외국인투자(FDI)로 인정받지 못하던 회사 '이익준비금'을 외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2010. 10. 6 외축법시행령 개정), 이에 따라 부지 무상임대,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도록 한 첫 사례가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트 '트위터(twitter)' 오픈



경상북도는 최근 스마트폰이 점차 대중화되고 트위터 이용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소비자와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사이소(www.cyso.co.kr)」에 트위터(twitter)를 오픈, 각종 판매 이벤트의 홍보, 추천 상품 전시 등을 통해 '사이소'의 참여방법을 다양화, 상품에 대한 평가와 구매후기, Q&A 등 자유로운 커뮤니티 공유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소 트위터'에 접속하는 방법은 트위터 홈페이지 'twitter.com'에서 트위터 아이디 'helpcyso'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http://twitter.com/helpcyso'를 입력하면 된다.

경북도, 우수농업인 정부포상 휩쓸었다 동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4명, 대통령표창 2명 등 역대 최다

경상북도가 제15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시행한 우수농업인에 대한 정부포상을 휩쓸었다. 수상자는 일광영농조합법인 이현송 대표가 동탑산업훈장, 상주원예농조합법인 김영국 대표이사, 풍기인삼농업협동조합 신원균 조합장, (주)한국라이스텍 운명희 대표이사, (주)송광매원 서명선 대표이사 등 4명이 산업포장, 풍천딸기·멜론수출작목반장 최상길씨, 예천농협 박시욱 조합장 등 2명이 대통령표창으로 총 7명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11월 22일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경북농업인이 대한민국 농업의 선도자로서 지역 농업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FAO아·태총회 등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 경북농업이 되도록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쌀 생산 도내 13만 6천 농가 대상 총 286억원 경북도, ha당 26만원씩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지원

경상북도는 올해 쌀 생산에 참여한 도내 전 농가인 13만 6천호에 대해 ha당 26만원씩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20만원에 비해 30% 인상하여 지금까지 지원액 중 최고 수준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지원액이다.

이번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정리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어려운 농가를 위해 연내에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단, 타 시·도 관외출입경작자, 취미농·부업농, 농업외고소득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방식은 직불제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개별농가에 지원한다.

경북농업명장 · 농어업인대상 시상

경북도, 제15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경상북도는 11월 11일 김관용 도지사,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및 농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농업인회관에서 제15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010년 경북농업명장으로 선정된 인삼분야 강성찬(영주시 소백산인삼영농법인), 양돈분야 박한용(경산시 설천농장)씨에 대한 인증패 수여가 있었으며, 2010년 경북농어업인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전체대상에 여성농업인 전기자(울진군 서면), 식량생산 홍의식(문경시 영순면), 친환경농업 신문수(예천군 호명면), 과수 신재환(영덕군 지품면), 화훼 조계래(구미시 지산동), 채소·특작 백민석(경주시 양남면), 축산 배동완(봉화군 봉화읍), 수산 (주)오브(경주시 감포읍), 기술개발·연구 전병목(성주군 수륜면), 농어촌개발 이상철(울진군 온정면)씨가 각각 수상했다.



2010 경북 우수·명품 농산물 선정!

명품화육성대상자 3개소, 경북우수농산물상표사용자 13개소

경상북도는 10월 22일 2011년 명품화 육성 대상자로 경주의 옥종합식품(김치), 영주의 풍기인삼농협(홍삼), 청송의 파란내식품(된장) 및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13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는 브랜드 개발·등록, 포장디자인 개발비, 판촉·홍보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명품화 육성사업 대상자는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되고,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는 포장제에 마크인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경북 명품·우수농산물은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소(www.cyso.co.kr)'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일반 유통매장 등을 통해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6·25전쟁 60주년사업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 지원 공로

김관용 도지사, 군 장병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김관용 도지사는 11월 9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이철휘 사령관 일행으로부터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6·25전쟁 60주년 사업에 대한 지원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제2작전사령부 장병들은 그동안 경상북도가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국민의 군대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6·25전쟁 60주년 사업 추진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6·25전쟁 60주년 기념 '낙동강 평화대제전', '낙동강전투 전승행사', '낙동강 전선 중주 마라톤 대회'를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희망약속 퍼포먼스 등 화합의 장 마련

2010 경상북도민의 날 행사,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도



경상북도는 10월 21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상호 도의회의장, 이영우 도교육감, 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회의장, 도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경상북도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힘차게 출발한 민선 5기와 함께 도 시군이 하나 될 수 있는 '화합과 상생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희망메시지 보드, 희망영상메시지, 희망약속 퍼포먼스 등 300만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도민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300만 도민들의 귀감이 된 '경상북도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상자 23명과 3명의 특별상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축하했다.

IPTV 공부방으로 교육격차 해소

경북도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IPTV 공부방 문 열어

경상북도는 11월 2일 김관용 도지사와 김원호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서종렬 (주)KT 미디어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제1회의실에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 (주)KT와 'IPTV 공부방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내 저소득,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방과 후 학습 지원을 위해 도내 지역아동센터에 콘텐츠 교육이 가능한 'IPTV 공부방'을 시범 설치·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IPTV 공부방이 설치되는 지역은 포항시 빛살지역아동센터 등 10개소로 2012년까지 도내 220개소 전 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과목과 원어인 화상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신성장 동력,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2010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개최

경상북도는 11월 5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우리의 신성장동력,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 그랜드포럼'을 개최, NGO 관계자,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 2천여명이 모여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을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보호 등 녹색성장 정책에 앞장서 온 개인·단체 등을 시상하는 '그린대상' 시상식이 함께 열려 최우수상에 경산시, 부문별 우수상으로 자치단체부문 경주시, 연구부문 김종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녹색생활실천부문 대구구치소 학습동아리인 '그린라이프', 친환경 녹색기업·단체부문에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각각 수상하였다.

선진국 강 복원 경험 비추어, 낙동강사업 성공 점쳐

‘낙동강 녹색 수변벨트 조성 위한 국제포럼’ 성공리 개최



경상북도는 10월 28일부터 29일 이틀 동안 구미시 호텔금오산에서 김관용 도지사,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31개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 해외 전문가, 시민 등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대한 첫 국제포럼인 ‘낙동강 녹색 수변벨트 조성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폴 라이트 국제 물협회(IWA) 사무총장의 기조 연설과 이나키 두케 스페인 빌바오시 대외 홍보총괄의 ‘스페인 네르비온강의 성공사례’ 발표, 니나 안 미국 카닝햄그룹 부사장의 ‘녹색수변벨트를 활용한 투자유치방안’ 사례 발표 등을 진행하여 높은 관심을 모았다.

악소노벨아מיד, (주)티아이, (주)티엠에스코리아 3개 업체

‘경상북도 신성장 기업’ 선정 시상

경상북도는 11월 15일 도청 접견실에서 악소노벨아מיד(대표 이경련), (주)티아이(대표 하정기), (주)티엠에스코리아(대표 김신호) 등 올해 3/4분기 ‘경상북도 신성장 기업’으로 선정된 3개 중소기업을 시상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경상북도 신성장 기업’ 선정은 기술 혁신적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도내 중소기업에 발굴 선정·표창하는 것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각종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지원, 기술개발 및 해외 시장 개척 우선참여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조형예술부문 등 6개 부문 6명 선정

제51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 개최

경상북도는 11월 10일 도청강당에서 도내 기관단체장과 역대 경상북도 문화상 수상자, 문화예술인,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조형예술부문 박찬용(영남대학교 교수), 공연예술부문 정숙희(한국무용협회 경북도지회장), 문학부문 제갈태일(포스코교육재단 이사), 체육부문 허 정(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언론출판부문 이상홍(대구MBC 편집제작팀 부국장), 문화부문 이한석(한국정수문화예술원 기획이사) 등 6개 부문 6명이다.

올해로 51회를 맞이한 경상북도 문화상은 향토문화 창달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공로가 큰 사람을 발굴, 격려하기 위하여 1956년도부터 매년 시상해오고 있다.

원자력 학과(전공) 개설 및 원자력 인력양성 위한 MOU 체결

경상북도, 동국대, 영남대, 위덕대 등과 원전 전문인력 양성

경상북도는 11월 3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 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원전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국대, 영남대, 위덕대와 원자력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 체결, 원자력 학과(전공)를 개설·운영하는 대학에 필요한 운영예산을 3년간 지원한다.

이번 MOU는 경북도에서 올해 1월 원전 인력 양성 계획을 포함한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원자력 관련학과 개설·운영을 협의한 결과, 동국대, 영남대, 위덕대 등 3개 대학이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산림비즈니스 원년의 해 선포행사 가저

산림자원, 미래 녹색산업 성장동력 육성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18일 김관용 도지사, 이상효 도의회 의장, 임광원 울진군수, 송재원 울진군의회 의장과 지역기관 단체,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 자연유산인 울진의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에서 산의 날 기념식을 겸하여 ‘경북산림비즈니스 원년의 해’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림정책 발전 유공 민간인으로 청송군산림조합 신광희 조합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유공공무원에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뉴질랜드인으로 백두대간을 종주하고 최초로 백두대간 영문가이드를 출간한 바 있는 ‘로저 셰퍼드’ 씨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소설 객주의 작가 김주영씨와 시인, 소설가, 화가 등으로 구성된 ‘문학사랑’ 팀이 울진 두천리와 소광리를 잇는 옛 보부상길을 답사하는 ‘보부상 DNA 프로젝트’를 마치고 참여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KTX) 개통 준공식 개최

‘전국 만나결 생활권’으로 지역개발 증진 효과 기대

경상북도는 10월 28일 신경주역과 김천(구미)역에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를 개통, 김관용 도지사, 김항식 국무총리, 정수성 국회의원, 경주시장, 철도관련 국내·외 인사,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신경주역 광장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신경주역은 KTX 개통으로 주중에는 하루 왕복 37회, 주말은 44회 정차한다. 역 주변 진입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도 마련되었으며, 시내에는 15분정도 걸리던 신경주역은 개통 후 10분 안팎으로 가까워졌다. 또 김천(구미)역은 KTX가 하루 44회(왕복) 정차함으로 김천은 물론 구미, 상주, 성주, 칠곡, 경남 거창 등 7개 시·군 약 85만명의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글라스社와 1억 5천만불 추가투자 MOU 체결

구미 아사히초차화인테크노 공장 LCD용 유리기판 설비 증설 투자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10월 27일 도청 대외통상교류관에서 일본 아사히글라스사의 구미공장인 아사히초차화인테크노(AFK)의 이노우에 시게키니 사장과 회사관계자, 산업단지공단 등 관련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아사히글라스사의 구미지역 추가투자는 매년 10% 이상 늘어나는 TFT-LCD(박막 트랜지스터방식 액정 디스플레이)용 패널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무알칼리 유리기판 생산시설 확장에 1억 5천만불을 투자한다.



경상북도 이중언어대회, 봉화중 이병찬군 대상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27일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서 '2010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콘테스트'를 개최, 봉화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중국 출신 엄마를 둔 이병찬 학생이 대상을 차지하여 상금 200만원과 경상북도지사상을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어울림상 4팀, 특별상 1팀 등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을 구사한 총 10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첨단수중시공로봇 연구개발 국제 워크숍 개최

경상북도는 11월 19일 포항지능로봇연구소에서 일 본, 싱가포르 등 국내·외 수중로봇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수중시공로봇 국제워크숍'을 개최, '미래의 국가신대륙'인 해양개발을 위해 국제적으로 해저터널 등 해양구조물건설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첨단수중시공로봇 개발방향을 모색하였다.

LG미소금융재단 구미지점 개소

경상북도는 11월 26일 LG미소금융재단 구미지점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는 기존 포스코 포항지부, 삼성 경산지부, 중앙재단 안동지점, 신한 영천지부 등에 이어 도내 5번째 미소금융재단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미소금융(美少金融)사업은 개인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영업장 시설 개·보수 등 소액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4억원 투자 본격 시동

경상북도는 상주시, 청송군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 국비 2억원을 확보, 이에 지방비 2억원을 더해 4억원을 지난 10월 국제슬로시티연맹의 현장 실사를 거쳐 내년 5월 국제인증장을 받게 될 예정인 상주시 함창읍·이안면, 청송군 파천·부동면 일원에 투입하여 슬로시티방문자센터 조성, 전통 돌담길, 산책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시설 복원, 관광안내표지판 등 관광객 수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도, 전국 우수 해수욕장평가 2개소 선정

경상북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전국 316개소 해수욕장 대상 평가에서 포항시 월포·영덕군 대진해수욕장 등 2개소가 '2010년도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우수해수욕장 20선'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운영관리분야, 환경·수질·경관분야, 안전 관리분야, 시설분야 등 4개 분야에 걸쳐 2010년 개장한 전국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로서 앞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홍보 및 해수욕장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인센티브를 내년 2월 중에 확정·지원할 계획이다.



팔공산 가산산성 '탐방둘레길' 열리다

경상북도는 팔공산도립공원 소재 가산산성 주변으로 안전펜스 및 테크계단을 설치하여 단절되었던 '가산산성 탐방둘레길'을 개통했다. 가산산성 탐방둘레길은 성벽을 따라 진남문에서 남포루, 가산바위를 지나 유선대, 용바위 그리고 중문과 동문을 거쳐 진남문으로 돌아오는 총 연장 10km의 1일 등산에 적합한 맞춤형 탐방코스이다.

동해안 해상양식어류 월동구역 지정

경상북도는 월성원자력본부 발전소 온배수 배출해역인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지역 5ha 규모를 12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해상양식어류 월동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월동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동절기 월동이 어려웠던 돌류, 방어 등 어류의 월동이 가능하여 지속적 양식이 가능한 환경 조성과 양식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되어 양식어업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입양가족 한마음 행사 개최

경상북도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주에서 해외 입양가족 50명과 국내입양가족 100여명을 초청, 경북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 형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입양가족 한마음 행사'를 개최, 경산 소재 미혼모자보호시설인 '경북사론의 집'을 방문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마을을 방문하여 전통예절과 다도, 전통놀이를 배우는 등 경북의 전통문화 및 역사를 체험했다.

2011년 '친환경 조사료 생산 단지' 조성

경상북도는 2012년부터 예정된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단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도내 5개소에 100ha 규모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는 농지를 인접하여 20ha 규모로 조성, 단지화합으로써 효율적인 기계작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액비로 제조·살포하는 자연순환형 농법을 적용, 품질이 우수한 조사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보육행정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16개 시·도 대상 보육사업 평가제도 도입 첫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0월 20일 울산에서 개최된 '2010년 전국보육인대회'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구미시가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손애화 포항시 햇님어린이집원장이 대통령표창, 현영란 경산시 시립남천어린이집원장이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상하고, 우수보육프로그램공모전에서 도 다문화시범어린이집 1호 김혜숙 예천성락어린이집원장이 최우수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사회소외계층 '전기·가스 노후시설 교체' 봉사활동

경상북도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도군 매전면 일대 5개 자연부락 53가구를 대상으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에 '전기·가스 노후시설물 교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도에서 자재를 공급하고, 전기·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과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지역 전기공사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경부고속도로 영천~경주~연양 구간 확장

경상북도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유일하게 미확장 구간인 영천~경주~연양간 54.8km의 조기확장을 위해 2011년 공사가 착공된다고 11월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30일 경주에서 제30차 FAO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 개최시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관용 도지사과 경주시장, 지역주민대표가 사업의 타당성을 간곡하게 설명한데 대해 대통령의 적극적인 검토지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0 경북사과 홍보행사 개최

경상북도는 사과 100년의 역사와 전국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경북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도내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와 대구경북농금농협 등과 공동으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2010 경북사과홍보행사'를 개최, 부산 소비자들에게 '사과 나누어 주기' 등 각종 이벤트를 펼쳐 호응을 얻었다.

2010 경북 Job Fair 개최

경상북도는 11월 17일 영남대학교 이희진 기념관에 서 공원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구직자, 기업체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0 경북 Job Fair'를 개최, 참여기업별 부스 운영과 각종 실업대책 안내, 전광판을 이용한 200개 업체의 구인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면접과 상담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부품, 제철·철강, 농업기계 분야 등에서 250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 최고 젓소를 만드는 경북 칠곡 대홍목장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대홍목장(목장주 최광현)이 젓소의 우수생산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선형심사에서 2009년 최우수목장에 선발되어 2008년 전국 홀스타인품평회 최우수목장에 선정된 것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목장으로 평가 받는데 이어 2010년 선형심사에서 전국최고 젓소(엑셀런트)로 선발된 4두 중 3두가 대홍목장의 젓소로 명실상부 전국 최고목장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기공식 가져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11월 11일 안동시 동부동 '경북콘텐츠지원센터' 건립부지에서 이삼걸 행정부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도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는 국·도비 115억원, 시비 79억원 등 총 1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2012년 5월 준공예정인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에 HD영상제작실, 멀티미디어실, 디지털아카이브실, 창업보육실 등을 갖추게 된다.

경북도, '친환경농업대상' 휩쓸어

경상북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하여 11월 13일 서울 동송동 대학로 마로니에광장에서 개최한 '제7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에서 총 7개 부문 중 6개 부문에서 수상하여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올렸다. 부문별로는 청송군이 기초 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상, 고령군이 친환경농업 우수지구로 선정되고, 친환경농업 발전 유공자에 예천군 참관농원 이현부 대표, 유기가공식품 생산유공 고운그림식품 홍문표 대표, 학교급식 유공자에 문경시 교육지원청 이경희씨, 개인공로상으로 조무제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이 수상했다.

산불 꼼짝마라!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

경상북도는 11월 3일 영주시 풍기읍 옥금리 금계저수지 주변에서 지역주민, 산림유관단체, 산불진화대원, 행정기관, 군부대 등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불재난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등 예측 가능한 모든 시스템을 가동시킨 가운데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훈련을 전개 실전에 버금가는 종합훈련으로 '2010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을 실시했다.

2010년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발대회 휩쓸어

경상북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2010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발대회'에서 청송사과(청송군)가 대상인 대통령상과, 의성마늘(의성군)·빛깔찬(영양고추유통공사)이 은상, 천년고수(상주시, 꽃감)·원용덕 의성흑마늘(의성흑마늘영농조합법인)이 동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전국에서 3개 부문 총 80개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17개 브랜드가 수상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경북도의 5개 브랜드가 상을 휩쓴 것이다.

2011년 한옥체험숙박시설 국비 전국최다 확보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에서 전국 14억원 중 48%인 6억 7천 5백만원을 지원받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2011년도 전통한옥 개·보수 사업에는 국비 6억 7천5백만원과 지방비를 합쳐 13억 5천만원으로 9개 시·군 14곳에 한옥 내부시설 개·보수와 화장실, 샤워실 등 관광숙박객 편의시설 설치에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에도 국비 1억 6천 3백만원을 지원받아 지방비를 합쳐 2억 7천 2백만원을 7개 시·군 14곳에 고택음악회, 전통제례체험, 전통음식체험, 전통다도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경상북도는 11월 11일 지난 한 달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경주의 '승보오토모티브(주)', 김천의 '(주)시노팩스프린텍', 포항의 '(주)티스테크'를 '행복나눔기업'으로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 이삼길 행정부지사가 직접 기업체를 찾아가 인증패를 수여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10월 21일 대구 EXCO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등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워싱턴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성찬)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의 경제동향, 경제 관련 정책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무역, 투자 등을 위한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 저소득층 겨울 난방용 연탄쿠폰 지원

경상북도는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총 29억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발행, 도내 연탄사용 저소득층 16,885가구(기초생활수급자 10,061, 차상위계층 1,947, 소외계층 4,877)에 가구당 16만 9천원의 연탄구입용 쿠폰을 시·군(읍·면·동)을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했다. 쿠폰을 지급받은 가구에서는 내년 4월 30일까지 가까운 연탄판매소에서 연탄 구입하거나 배달받은 후 연탄쿠폰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경주관광 르네상스를 위하여

경상북도는 10월 30일부터 31일 양일간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로 경주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KTX 경주역 개통 홍보를 통해 경주관광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오스트리아 조셉몰러 대사를 비롯한 11개국 대사 및 총영사 30명과 주한외국인, 해외파워블로거, 일본여행업관계자, 해외언론인 등 외국인 400여명과 한국관광공사 CEO, 기업인, 언론인, 한국관광서포터즈, 여행작가, 관광기자단, 다문화가족 등 내국인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관광 르네상스' 행사를 개최했다.

2010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국제경제협력포럼 개최

경상북도는 10월 26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회원인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5개국에서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 및 UNESCAP과 UNDP-GTI 등 국제기구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을 위한 동북아시아역간의 협력'이란 주제로 2010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국제경제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제243회 정례회 결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민생 관련 안건처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별 도청 각 실국별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및 도정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

로 2009 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각종 안건을 최종처리하고 폐회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박기진)는 제243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10월 26일 제3차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곧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이상호 의장, 도청이전 국비예산 확보 발 벗고 나서

이상호 의장은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면담을 가지는 등 경북도청 이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상호 의장은 10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경을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2005년에 도청 이전을 완료한 전라남도의 경우 법적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사 신축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인 1,687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은 바 있어 청사 신축비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이 시·도간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사 신축비에 대해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경북도의 경우 현재 청사건립비용 4,055억원 중 국비지원액은 현 청사의 공사금액 기준만으로 책정한 845억원(신축비의 21%)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나머지 3,210억원을 모두 도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또한 전라남도와의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피력하면서 청사건립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북도내 야학운영 대표자 간담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10월 13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야학운영 대표자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도내 야학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도내 야학운영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야학협의회는 운영지원 조례 제정, 중앙 및 도 담당부서 지정, 상근자 인건비 및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시설 개·보수 지원 및 교육기자재 지원,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대표자들에게

앞으로 평생학습 차원에서 배움의 뜻을 가진 주부,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에게 교육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 현지 확인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10월 20일 안동시 풍천면 소재 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단 회의실에서 제2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종록 도청이전추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위한 현지확인 실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10월 21일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타당성과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최적입지에 대한 공조관계를 도모하고 경북도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밀양 현지 및 밀양시의회, 밀양시청 등 관련 기관을 방문,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최적입지는 밀양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공조관계를 유지·협력하기로 했다.





정책연구사례집 발간으로 입법정책연구 활성화 도모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팀은 도의원의 다양한 입법정책 연구활동과 정책대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수행한 연구활동과 입법정책세미나 및 정책연구용역결과 등을 정리한 정책연구사례집을 발간·배포하였다.

이 책자는 2009년 9월에 출법한 제2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가 1년여 동안 수행한 입법정책연구과정과 성과물을 한 곳에 모아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지난 2월 5일 경북의 새로운 비전을 찾고자 개최한 입법정책세미나와 정책과제 연구용역 등의 주요내용을 4개 분야 총 6건으로 구분하여(A4크기 책자형 350여쪽) 연구목적,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어 향후 입법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구·경북 시도의원 친선 체육대회



경상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회는 10월 26일 대구환경시설공단 신천사업소(하수종말처리장) 운동장에서 대구·경북 의정활동 공동사안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원 친선교류를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 경북·대구시의원과 출입기자, 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 족구, 줄다리기, 400m 릴레이, 협동릴레이 등을 통해 친선을 나누었다.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기능 강화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전격 통합

경상북도의회는 제243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 입법정책기능 활성화라는 같은 목표이면서도 별도로 설치·운영되었던 연구위원회제도와 의원연구단체제도를 전격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도의회 차원의 입법정책기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입법정책 활성화제도가 외부의 연구용역에 의존하였던 측면을 대폭 개선하여 의원과 소

수의 외부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표·토론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직접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의원입법발의까지 이끌어내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연구용역비를 절감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는 관계없이 관심있는 정책분야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입법발의를 대폭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상임위원회 연합으로 실용적 업무연찬 의정활동 전문지식 함양과 위원회 효율적 운영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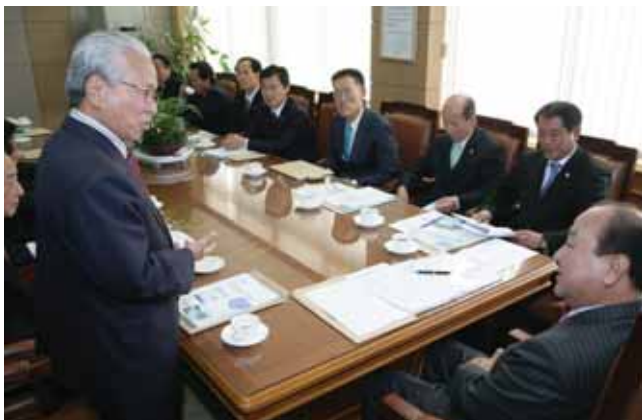
◆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권명만)와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공동으로 소속 위원 22명(행복위 10, 농수산 12)이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전남 구례 농협중앙회 인재개발원에서 2010년도 상임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최균 교수의 '사회복지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특강 및 고현석 前 곡성군수의 '우리나라의 농정과 농업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특강을 청취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만 컨테이너부두를 방문하는 등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와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경기도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원에서 양 위원회 연합 의원연수회를 개최, 김지일 머니옥션 대표의 '환경변화에 따른 혁신을 지배하라'는 주제특강을 청취하고, 경기도 이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지역간의 갈등해결 사례를 살펴보고, 폐기물 자원화 시설 및 수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지역환경 개선 현장을 탐방하는 한편, 분묘토의를 통하여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와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에 걸쳐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강원 양양)에서 상임위원회 연찬회를 실시, 상임위원회의 기능 및 제고방안, 수준 높은 상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방승인 고해성 강사로부터 '정치인의 해악과 리더십' 주제강의 및 하승수 변호사로부터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강의와 토론을 실시했다

대구시 취수원 이전, 구미지역 반대추진위원회 도의장 면담 지역주민 여론수렴 통해 합리적 취수원 결정해야



윤창욱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구미지역 도의원 8명을 포함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구미시 범시민 반대추진위원회 위원 17명은 11월 5일 오전 경상북도의회를 방문, 이상효 도의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결사 저지를 천명하며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효 의장은 “시·도간 사전협의나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취수원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정 발전 위한 상호협력 계기 초선의원, 의정활동 전문성강화 시동



제9대 경북도의회 초선의원 모임인 초우회(회장 최학철)는 11월 9일 경상북도의회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제244회 정례회에서 다룬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초선의원들의 경북도정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현안들에 대한 도정방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마련되었다.

<제244회 정례회 결산>

지적·적발 보다는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중점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경북도 및 교육청 예산 심사

경상북도의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40일 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정례회를 개최, 11월 15일 김관용 도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1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과 도청 이전 신축비 전액국비지원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이날 본회의 전에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전인철·변우정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처리했으며, 아울러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장이 제안한 ‘도청 이전 신축비 전액국비지원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및 교육청 각 실국 및 도내 각 사업장,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명의 의원이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하였다. 이어 12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본예산에 대한 각 실국별로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년 본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이후, 12월 21일 본회의를 열어 2011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을 최종처리하였다. 또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종 안전심사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12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 및 현안사항, 2010년도 추경예산안을 최종 처리함으로써 올해 마지막 회기 4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도정질문



김희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노인성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 경북도 차원의 요양병원 실태 점검대책,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인원을 늘리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지원 대책방안, 요양시설에 1인용 침실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도 차원에서 수당지원 등 지원방안, 도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관리감독 대책,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실비지급 현실화에 대한 견해,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확보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

KTX 경부선과 연결예정인 거제~진주 구간을 김천과 연결하는데 대한 견해와 대책, 김천~상주~문경 간의 경북선 철도 개발사업을 제2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대책, 동해선, 중앙선, 중부내륙철도를 향후 TKR로서의 역할과 TSR, TCR과 연결하는데 대한 견해와 대책, 중앙선의 복선절철화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할 의향, 영천경마공원 개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견해와 대책,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계획으로 인해 운문댐 물을 울산에 공급하려던 계획을 다시 추진할지도 모르는데 이에 대한 우리도의 대응방향 등 도내 상수도 문제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해 질문했다.



김영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사업 가운데 경산지식산업지구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하는데 만약 경산지구 지정이 해제된다면 이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과 책임 소재,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실행계획, 경북 동남권 발전의 새로운 기반시설이 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산연장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도내 폐교를 평생교육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견해 등에 관해 질문했다.



홍진규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도내 중소기업 현장의 구인난과 일자리가 없는 청년층이 구직난을 동시에 겪는 이른바 미스매치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소위 '중소기업 취업점수제' 도입 등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의향, 도청 이전에정지 신청사 건립 추정사업비 예상 규모, 도청이전 예산 국비전액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및 만약 국비전액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재원확보방안, 도청이전 신도시 도로망 개설 관련 예산 확보방안, 도청이전 신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 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을 권역별로 분산하여 이전할 의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영식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목조 문화재 고유의 경관을 살리면서 영구적인 방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방재설비 자체가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안, 방재공사시 문화재 전문 공사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정할 것에 대한 견해, 문화재 유형별 방재 예측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특별 관리하는 기준안 마련 계획, 문화재 방재 설비는 일반화된 표준이 아니라 재난 예측을 위한 포괄적 시스템과 더불어 현장 환경에 적합한 시설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 등을 질문했다.



김원석 의원(교육위원회)

경북도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 2010년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분 7억 4,000여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징수하여 진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7억 4,000만원을 계상한 근거, 향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 문제 해결방안, 상주국제승마장 조성사업 및 대회 운영경비에 대해 도비지원 당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검토된 의견,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주시에서 상주국제승마장의 운영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의향, 영천경마공원 조성 추진에서 예상되는 사행심 조장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실질적 연구활동 가능한 다양한 장치, 지원책 마련

도议회의 입법정책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이 출범한 제9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가 11월 15일 도의회 제2별관 회의실에서 제3기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3기 정책연구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영천 출신의 김수용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을, 부위원장으로 도기욱 의원(기획경제위원회)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정책연구위원회 경과사항보고와 2011년도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경주-포항 공동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장세현 문화환경위원장, 박병훈 예산결산위원장 토론자로 나서

포항 출신인 장세현 문화환경위원장과 경주 출신인 박병훈 예산결산위원장은 지난 11월 25일 경주지역발전협의회(회장 이상덕) 주관으로 서라벌대학에서 경주대학교 최재영 교수, 서라벌대학 오창섭 교수, 동국대학교 주재훈 교수 등을 초청하여 개최한 경주지역발전협의회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 경주와 포항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지역발전 및 현안 해결방안 추진보다 시너지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양 지역의 상생전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결의대회 개최

명백한 전쟁 범죄행위 강력 규탄

경상북도의회는 11월 29일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한 '연평도 무력도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상북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토를 방위하다 순국한 장병과 그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민간인 거주지를 겨냥한 연평도 무차별 포격행위는 비인간, 비인도적 만행으로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전쟁행위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중앙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만행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국회 및 독도연구소와 공조 방안 강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찬길)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및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를 방문하여 독도영토 수호를 위해 상호 공조방안을 강구했다.

독도특위는 11월 25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참관하고,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독도방파제, 독도해양과학기지건설, 독도현장 관리사무소, 울릉 사용항 2단계 개발 등 독도 관련 현안사업 중 지연 또

는 유보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26일에는 정부차원에서 독도문제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를 방문하여 독도문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영토·영해 관련 조사연구사업과 홍보,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현황 등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었다.

낙동강사업 중단 없는 추진 위한 촉구 성명서

소모적 논쟁 즉각 중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해야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7일 채옥주 위원장, 구자근 부위원장 및 특위위원들이 함께 낙동강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위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의 최대 현안 사업인 4대강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가뭄과 물 부족 등 고질적인 물 문제 해결은 물론 생태복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에도 직결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학원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학부모·학원장 관계자 간담회 갖고 조례 개정 의견 교환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12월 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학부모, 교원, 학원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행 조례는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초·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제한하고 있고,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건강권 보호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초·중·고 모두 밤 10시로 단축시키는 개정내용을 담고 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이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월에 실시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 모두 밤 10시로 단축하되, 고등학생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에 의해 밤 11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다.



2010년 11월 10일부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시행

독도명예주민증 발급규칙 제정·공포

경상북도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수호의지에 대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협의하여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울릉군이 10월 1일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공포와 11월 10일 '독도명예주민증 발급규칙'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11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독도에 입도 하거나 선회 관광 후 독도명예주민이 되고자 희망하는 내·외국인이 대상으로 발급 희망자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dokdo.ulleung.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입도 여부를 확인한 후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으로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 함양과 아울러 국내·외에 독도사랑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독도 방문객이 가급적 많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부서 : 독도수호과 053-950-2173)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신청 자격 강화

매출액 5억원 이상, 잔류농약 검사 등 성적서 제출 의무화

경상북도는 최근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경북 우수농산물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 요건을 2011년부터 강화키로 했다.

기존의 신청자격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나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해 농산물우수관리인 인증 또는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변경된 신청자격은 기존의 신청자격과 함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잔류농약 등 품질 안전성 검사성적서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2010년 현재 경북도

내에는 과실·채소·화훼·버섯·곡류·축수산물·가공식품류 83개 품목 191개소(평균 매출액 28억원)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영양고추유통공사, 풍기인삼농협 등 12개 업체가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이 되면 우수농산물 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인 사이소(www.cyso.co.kr)에 우선적으로 입점할 수 있고, 아울러 포장재와 입간판 지원, 경북우수농산물 구매가이드에 게재되어 도매시장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 전국에 홍보되는 혜택을 받는다. <담당부서: 식품유통과 053-950-2954>

“축산물위생관리법” 전면개정 시행

11월 26일부터 시행,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

경상북도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전면개정되어 11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 등 전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대폭 보완하고 축산물의 검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과징금·과태료의 상한액이 식품위생법 수준인 2억원,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에 고안에 따르면 닭·오리의 포장유통의무 확대 실시, 계란의 포장유통의무의 주체가 되는 식용란 유통판매업

신설, 생햄·치즈 등 일부 축산물가공품의 분할판매업 신설 및 축산물영업자의 위생교육 강화 등 주요 개선과제들이 시행되면서 축산업의 발전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내 축산물 가공장, 축산물판매업소 등 총 4,971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축산물위생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축산물 명예위생감시원 등을 적극 활용 개정법률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축산물영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축산경영과 053-950-3793>



2011 UIAA Ice Climbing World cup Lead and Speed / Cheongsong, Korea 2010 UIAA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난이도 및 속도경기, 대한민국 청송

기간 2011. 1. 7~1. 9 [3일간] 장소 얼음골빙벽장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 주최 UIAA(국제산악연맹) 国际大韩山岳联盟 청송군 • 주관 경북산악연맹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상북도 • 협찬

아시아 최초로 2011 세계빙벽등반대회를
청송군 부동면 얼음골에서 개최합니다

